

#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

김은영<sup>1</sup>, 이미애<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sup>2</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Disabled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Eun-Yeong Kim<sup>1</sup>, Mee-Ae Lee<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 5차 자료(2019)의 등록장애인 3,907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정적(+) 유의수준을 파악하였다. 넷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정적(+)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장애인,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

**Abstract** It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disabled affects daily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907 registered disabled people in the 5th Data of the Disabled Employment Panel (2019), and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daily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 significant. Second,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positive(+) significance level. Third,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daily life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ce level. Fourth, the positiv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daily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i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n their daily lives.

**Key Words** : Dis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Daily life satisfaction, Employment panel for the disabled

\*Corresponding Author : Mee-Ae Lee(meeae@hansei.ac.kr)

Received May 19, 2022

Accepted August 20, 2022

Revised July 29, 2022

Published August 28, 2022

## 1. 서론

장애인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가족구성원의 주지원자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인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20년 5월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 48.7%이며, 우울감 경험율은 18.2%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율은 11.1%,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 생활만족도는 3.2점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족, 친구, 살고 있는 곳, 최근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등의 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며, 우울감의 경험율은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은 상태의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시도는 시기적 적절성을 가질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 일상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2]과 일상생활수행 장애[3], 경제활동상태[4], 취업[5,6], 건강과 우울[7], 사회경제적 지위[8], 직업스트레스[9], 대인관계[10-13], 자기효능감[10,14-16] 등의 변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개인적 정서적인 관계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족, 동료 등 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인관계는 타인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다[17].

현재까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의한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10,12,14].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필요도와 대인관계 충분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다고 말한다[18]. 더불어 고령 장애인의 친구와 가족 간 대인관계가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을 밝혔으며[19], 성인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12]. 이와는 반대로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부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0].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행동 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21].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로부터 재활하도록 이끄는 핵심적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22].

현재까지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23]. 또한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하고,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24].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우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25]. 이처럼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주된 영향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11].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히고 있다[26].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

는 변인이다. 이같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며, 실제 행동양식을 가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기효능감을 자각하고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지 집중하고 있다[23].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27]. 그리고 고령 장애여성에게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현재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소수만 보고된다[10]. 선행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이 제외되었다. 이는 통제변수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정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크기 즉,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을 거쳐 모형과 이론의 설명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과 관련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2020년 5차 조사자료[28]의 만15세~만68세의 등록 장애인 3,907명이다. 자료수집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20)에서 1단계 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이를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층화 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모집단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가 표본으로 4,577명이다. 조사방문 시 부재, 이사, 거절, 단 장기 부재, 사망, 장애등록 취소 등을 포함한 670명은 제외하고 3,907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2.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 2.2.1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의 척도는 Schlein, Guerney & Stover(1971)[29]의 대인관계 조직적응능력 척도를 장애인고용패널(2019)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점=가끔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오형, 문재우(2018)[10]의 신뢰도 계수는 .866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08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Jerusalem & Schwarzer(1992)[30]가 개발하고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과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권오형, 문재우(2018)[10]의 신뢰도는 .929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43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3 일상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장애인고용 패널(2019)에서 일상생활과 삶의 질 만족도 부분을 일상생활만족도로 선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며[10] 측정 문항은 일상생활과 삶의 질 만족도 부분과 관련된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가족, 친구, 사는 곳, 건강상태 등의 문항에 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권오형, 문재우(2018)[10]의 신뢰도는 .767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만족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4 통제변수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연령은 39세 미만,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 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1, 심하지 않은 장애=0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1, 좋다=0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 중하층, 중상층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 건강상태는 나쁜 편, 가족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 장애정도는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장애인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장애인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1].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6개로 선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과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파악과 이들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Sobel Test를 통해 부분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 characteristic       | division                 | Frequency (persons) | ratio (%) |
|----------------------|--------------------------|---------------------|-----------|
| gender               | Woman                    | 1358                | 34.8      |
|                      | man                      | 2549                | 65.2      |
|                      | Sum                      | 3907                | 100       |
| age                  | 39 -                     | 1115                | 28.5      |
|                      | 40-49                    | 1079                | 27.6      |
|                      | 50 +                     | 1713                | 43.9      |
|                      | Sum                      | 3907                | 100       |
| level of education   | Under middle school      | 1019                | 26.1      |
|                      | high school              | 1878                | 48.1      |
|                      | University graduation    | 1010                | 25.8      |
| degree of disability | Sum                      | 3907                | 100       |
|                      | evere disability         | 1530                | 39.2      |
|                      | mild disability          | 2377                | 60.8      |
| physical condition   | Sum                      | 3907                | 100       |
|                      | bad side                 | 1908                | 48.8      |
|                      | good side                | 1999                | 51.2      |
|                      | Sum                      | 3907                | 100       |
| socioeconomic status | lower class              | 1529                | 39.1      |
|                      | middle and lower classes | 1860                | 47.6      |
|                      | above the upper class    | 518                 | 13.3      |
|                      | Sum                      | 3907                | 100       |

성별은 여자 1358명(34.8%), 남자 2549명(65.2%)으로 나타나 장애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에서는 39세 이하 1,115명(28.5%), 40세~49세 1,079명(27.6%), 50세 이상 1,713명(43.9%)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019명(26.1%), 고졸 1,878명(48.1%), 대졸 이상 1,010명(25.8%)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가 1,530명(39.2%), 심하지 않은 장애 2,377명(60.8%)으로 나타나 심하지 않은 장애가 조금 높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건강상태는 나쁜 편 1,908명(48.8%), 좋은 편 1,999명(51.2%)으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는 편이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 Variable                   | M      | SD     | skewness | kurtosis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2.7177 | 0.6411 | -0.654   | 0.423    |
| self-efficacy              | 2.6937 | 0.6342 | -0.784   | 0.344    |
| daily life satisfaction    | 3.3705 | 0.5860 | -0.377   | 0.223    |

본 연구의 독립변수 대인관계의 평균값(표준편차)은 2.7177(.6411),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의 평균값(표준편차)은 2.6937(.6342),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3705(.5860)로 나타났다.

평균값 기준에서 볼 때, 장애인은 일상생활만족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을 파악하기 위한 왜도의 값에서 대인관계는 -.654, 자기효능감은 -.784, 일상생활만족도는 -.377로 나타나 왜도 절대값 2미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왜도 값이 음(-) 값을 가지면 자료의 평균(중심)이 정규분포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꼬리는 왼쪽으로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는 대인관계는 .423, 자기효능감은 .344, 일상생활만족도는 .223으로 나타나 절대값 7미만을 이루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였다. 정규분포의 첨도가 0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첨도 값은 정규분포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3.3 상관관계 분석

장애인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즉, 대인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상관관계는 대인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716, p<.001$ ). 절대값이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394, p<.001$ ). 이는 대인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475, p<.001$ ). 이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간에는 연관된 관계의 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 variable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self-efficacy | Daily life satisfaction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1                          |               |                         |
| self-efficacy              | .716***                    | 1             |                         |
| Daily life satisfaction    | .394***                    | .475***       | 1                       |

\*  $p < .05$ , \*\*  $p < .01$ , \*\*\*  $p < .001$

### 3.4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정도,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 division                   | 1model( $\beta$ ) | 2model( $\beta$ ) | 3model( $\beta$ ) |
|----------------------------|-------------------|-------------------|-------------------|
| gender                     | -.011             | .002              | -.010             |
| age                        | -.011             | -.062***          | -.076***          |
| level of education         | .085***           | .035*             | .013              |
| degree of disability       | .029**            | -.034*            | -.067***          |
| physical condition         | .303***           | .258***           | .228***           |
| socioeconomic status       | .303***           | .258***           | .230***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260***           | .087***           |
| self-efficacy              |                   |                   | .289***           |
| R <sup>2</sup>             | .283              | .334              | .370              |
| F                          | 256.86***         | 278.85***         | 286.14***         |
| Durbin-Watson              |                   |                   | 1.619             |
| VIF                        | 1.02-1.26         | 1.03-1.33         | 1.0342.28         |

\*  $p < .05$ , \*\*  $p < .01$ , \*\*\*  $p < .001$

3모형에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을 통제하고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만들어진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R<sup>2</sup>)는 .370으로서 데이터 총 변동의 37.0%를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통제변수와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를 잘 설명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본다.

또한 F통계량은 286.148,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자유도로 조정되어 설명된 변동과 설명되지 않는 변동의 비로 이들의 관계는 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제변수가 일상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분산팽창지수는 모든 변수가 1.034-2.289로 10이하를 나타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연령( $\beta = -.076, p < .001$ ), 장애정도( $\beta = -.067, p < .001$ ), 건강상태( $\beta = .228, p < .001$ ), 사회경제적 지위( $\beta = .230, p < .001$ ), 대인관계( $\beta = .087,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89, p < .001$ )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령은 40세 이하,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5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자기효능감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 간 부분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32]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variable                   | Step 1( $\beta$ ) | Step 2( $\beta$ )       | Step 3( $\beta$ )       |
|----------------------------|-------------------|-------------------------|-------------------------|
|                            | self-efficacy     | Daily life satisfaction | Daily life satisfaction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0.716***          | 0.394***                | 0.110***                |
| self-efficacy              |                   |                         | 0.396***                |
| R <sup>2</sup>             | .513              | .155                    | .232                    |
| F                          | 4110.6***         | 716.61***               | 588.03***               |
| D-W                        | 1.716             | 1.552                   | 1.605                   |
| VIF                        |                   |                         | 2.053                   |

\*\*\*  $p < .001$

첫째,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대인관계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에 대인관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beta = .716, p < .001$ ). 이에 1단계 조건을 만족시켰다.

둘째,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대인관계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일상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beta = .394, p < .001$ ). 이에 2단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셋째, 3단계에서 독립변수에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고, 종속변수에 일상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변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대인관계( $\beta = .110, p < .001$ )와 자기효능감( $\beta = .396, p < .001$ ) 등이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Sobel Test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on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 Path between variables   | Z       | p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self-efficacy→Daily life satisfaction | 14.1523 | .000 |

Z 값이  $p < .05$  수준에서  $\pm 1.96$ 보다 크면 매개효과 유의성이 검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고,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여 Z 값을 확인한 결과 14.1523,  $p = .000$  으로서 Z 값이  $\pm 1.96$ 을 넘고 있어 통계적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다.

## 4.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5차 조사자료(2020)의 만15세~만68세의 등록 장애인 3,9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의한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0,12,14]. 또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2,18,19].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인관계를 파악하였으며[10],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12],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규명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취업, 미취업,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의한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3-25].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한 결과를 지지한다[23]. 그리고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24].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우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정적 유의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5]. 종합하면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힌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행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9,26,27]. 그러므로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감에 있어 일상생활만족도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미쳤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0]. 그러나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큰 차이는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신뢰도, 영향력에서 본 연구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017

년 자료에서 연구대상을 1,483명으로 선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모형과 이론의 설명에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일상생활만족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대인관계는 일상생활만족도를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타인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능력인 대인관계 능력이 발달할수록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타인과 관계맺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주보호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인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장애의 유형과 연령이 비슷한 그룹으로 연대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타인과 긴밀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으로 매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소득,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실천프로그램 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일부 장애인 단체, 재활기관, 복지관 등에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예 프로그램, 미술치료, 자조모임,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관의 일회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으로 전략하지 않

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과 주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5차 조사자료(2019)의 만15세~만68세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서 한 시점의 결과이기에 연구결과를 장애인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관계,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고용, 복지, 의료 등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개입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 2020 Disabled Persons Survey.
- [2] S. G. Kang & K. W. Lim. (2017). Analysis of Longitudinal Factors on Satisfaction of Job and Daily-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Disability & Employment*, 27(2), 29-45. DOI : 10.15707/disem.2017.27.2.002
- [3] M. S. Ko. (2019). The Effects of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Health and Welfare*, 21(1), 27-49. DOI : 10.23948/kshw.2019.03.21.1.27
- [4] M. S. Ko & D. J. Kim. (2014).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Female Disabled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loyment*, 24(2), 137-164. DOI : 10.15707/disem.2014.24.2.005
- [5] B. K. Kim & Y. H. Nam.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for Three Different Modified Equivalence Scales Household Income Groups of the Disabled : Low, Middle, and High Household Incomes. *Disability & Employment*, 24(3), 67-98. DOI : 10.15707/disem.2014.24.3.003
- [6] H. J. Cho & W. K. Jeong. (2016).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d Dynamic Analysis Method. *Disability & Employment*, 26(3), 207-240. DOI : 10.15707/disem.2016.26.3.008
- [7] D. J. Kim. (2017). The Influenc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519-526. DOI : 10.14400/JDC.2017.15.1.519
- [8] E. C. Seo. (2014). The Longitudinal Causal Model between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nd Daily Life Satisfaction in Worker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4(2), 37-66. DOI : 10.15707/disem.2014.24.2.002
- [9] S. H. Kim. (2013). The Impact of Job Str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orker - Mediator Effects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4, 223-246. DOI : 10.15300/jcw.2013.03.44.223
- [10] O. H. Kwon & J. W. Moon. (2018).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327-333. DOI : 10.22156/CS4SMB.2018.8.6.327
- [11] Y. I. Moo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kill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12] S. K. Park, S. W. Lee & S. M. Kim. (2018). The Effect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maintain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aily-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0, 123-149. DOI : 10.22779/kadw.2018.40.40.123
- [13] D. J. Kim & C. J. Choi. (2020).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24, 87-115.
- [14] J. Y. Kim. (2020).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ability & Employment*, 30(1), 25-50. DOI : 10.15707/disem.2020.30.1.002



- [15] G. S. Lee. (2019).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for the study of reformed theology*, 19, 221-246.
- [16] J. Y. Song. (2020). An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Return to Work :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GRI REVIEW*, 22(3), 119-147.
- [17] Asher, S. R., Renshaw, P. D.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3, 137-158.
- [18] J. S. Kweon. (2012).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Graduate School Hanshin University.
- [19] H. E. Lee & K. S. Kim. (2013).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The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3(1), 61-78.
- [20]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tic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21]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the 1990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 [22] Y. B. Lee, S. M. Sin, D. S. Lee, Y. H. Cho & H. J. Joo. (2018).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Self-efficacy of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y :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4), 301-324. DOI : 10.23944/jrsers.2018.12.57.4.14
- [23] S. A. Youm & L. Y. Kang. (2020). The Effects of Middle-aged Interpersonal Ability 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of Severity and Differences Between Gender Groups. *Humanities and Society* 21, 11(2), 317-330.
- [24] S. K. Choi, J. W. Lee, H. R. Park & M. S. Ku. (2013). The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ge Friends and Self Efficacy of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7(1), 239-261. DOI : 10.21075/kacs.2015.17.1.239
- [25] Crewe, N. M. & Krause, J. S. (1988). Marital relationships and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9(6), 435-438.
- [26] H. W. Kim & D. W. Kim.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adults with cerebral palsy and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m.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1, 193-212. DOI : 10.22779/kadw.2013..21.193
- [27] Korea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2021). 2020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 <https://www.kead.or.kr>
- [28] Schlein, S., Guernsey, B. G. & Stover, L.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29] Jerusalem, M.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30] M. Y. Song.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by Gender Difference. *Korean Gerontology*, 31(1), 143-155.
- [3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15(6), 1173-1182.
- [32] J. S. Kim & H. J. Lee. (201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Deaf People-The perspective of economic assistance and needs-based assistan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2, 25-46. DOI : 10.22779/kadw.2013..22.25

김 은 영(Eun-Yeong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18년 2월 :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20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박사과정)

- 2020년 5월~현재 : 고구려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개발
- E-Mail : yeongia6042@naver.com

이 미 애(Mee-Ae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학사)
- 1994년 6월 : Syracuse University Dept. Public Administration(석사)
- 1997년 6월 : Syracuse University Dept. Social Science(박사)

- 1999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호
- E-Mail : meeae@hansei.ac.kr